

‘응원봉 소녀’의 문화정치

- 동시대 한국소설로 본 아이돌 팬의 초상

전예원 (성균관대학교)

1. 들어가며

이 글은 12.3 이후 탄핵집회 광장에 나타난 ‘응원봉’의 의미에 주목하여,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응원봉 소녀’로 범주화한다. 여기서 응원봉 소녀란 2024년 12월 3일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반발하여 퇴진 집회에 참여한 아이돌 팬들을 일컫는다. 동시에 이 용어는 아이돌 팬 문화에서 발생한 상징물인 응원봉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촛불 소녀’로 말해지는 광장의 여성 정치 주체의 계보 뒤에 두기 위한 조어다. 이 글에서는 202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 문학장에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한 ‘덕질’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응원봉 소녀 담론에 대한 한국소설의 재현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재현과 재림, ‘촛불 소녀’에서 ‘응원봉 소녀’까지

2008년 광장에서 2024년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광장의 여성들은 ‘촛불·유모차·하이힐·‘응원봉’과 같은 표지들과 함께 그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권김현영은 촛불에서 응원봉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광장정치에 관한 짧지 않은 계보를 정리하면서 ‘촛불’이 ‘응원봉’이라는 상징물로 변화했다고 쓴다.¹⁾ 논자도 ‘변화’라 칭하듯이 응원봉은 촛불과도, 깃발과도 무척이나 다르다. 응원봉의 의미는 촛불과도, 깃발과도 무척 다르다. 응원봉은 광장의 정치적·문화적 의례와는 별도로 그 이전에 이미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물건이며, 이것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팬심’을 표출하기 위한 소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게다가 응원봉이 촛불이나 깃발과 같이 비폭력·반폭력의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응원봉 소녀들은 출국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 공항 앞에 줄지어 서고,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암표를 사들이는 등 폭력과 착취에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통령 퇴진 집회에 등장한 응원봉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광장정치에 참여한 다중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이돌 팬덤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문화연구에서 시도된 아이돌 팬 문화 분석의 초점은 ① 능동적 수용자, ② 소비자주의 비판, ③ 페미니즘 운동의 여성 행위자 등으로 분류·계열화할 수 있다. 능동적 수용자론에 따르면 아이돌 팬은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돌 팬이 지닌 의미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팬덤 문화정치 연구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반면 유례없이 팽창한 아이돌 산업과 플랫폼 자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연구가 있다. 자본에 포획된 플랫폼이 자생적으로 생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반을 파훼했다거나,²⁾ 아이돌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팬 플랫폼이 ‘진정성’이라는 감정 자본을 매개한다는 주장들이 이에 해당한다.³⁾ 다른 한편 2010년대 중반 아이돌 팬덤문화에 대한 관심의 대두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담론이 재부상한 시기와도 맞물린다. 아이돌 팬덤문화의 양식과 페미니즘 운동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광장에서 2030여성의 만남과 발화가 어떻게 응원봉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⁴⁾⁵⁾

1) 권김현영,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상징 전환: 사물, 장소, 주체의 변화」, 『문학들』 80, 심미안, 2025년 여름, 45-46쪽
2) 강신규,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팬덤: 아이돌 팬 플랫폼과 팬덤의 재구성」, 『한국언론학회』 66-5, 한국언론학회, 2022.
3) 신윤희, 「‘수치화’된 진정성(Authenticity): ‘팬덤 플랫폼’은 팬 주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디어, 젠더&문화』 39-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그런데 이 같은 논의구도에서 발견되는 것은, 팬덤문화와 광장정치의 결합을 관성적으로 재현하는 이 세 가지 담론의 회로 속에서 ‘응원봉 소녀’라는 기표가 공회전한다는 점이다. 이 회로에서 응원봉 소녀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얼굴로 재림을 반복한다. 요술봉을 손에 쥔 마법소녀들처럼 응원봉 소녀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세계를 구하러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응원봉 구매의 근본적인 동기, 즉 이들이 누군가를 열렬하게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다시 말해, ‘팬덤의 정치적 수행, 소비자의 횡포(?), 여성 청년의 주체화 과정’이라는, 팬 문화에 대한 분석 틀에서는 정작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최애를 향한 사랑’이라는 요소가 비가시화된다는 것이다.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광장으로 소환하게 된 가장 강력한 동기가 ‘사랑의 이름으로 (윤석열)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3. 동시대 한국문학의 풍경 : 사랑, 자본 그리고 ‘덕질’의 딜레마

응원봉 소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감정구조에 대한 전착이 필요하다. ‘응원봉’이라는 물건에서 알 수 있듯 팬들의 사랑은 특정 상품의 구매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이때 응원봉 소녀에게 ‘사랑’은 다소 복잡한 의미를 갖는 에너지다. 그것은 ‘○○(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팬으로 하여금 ‘여의도’로 상징되는 현실정치의 장에 나아가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오빠/웅니’에게 그룹 탈퇴를 종용하게 하는 힘이다. 또한 ‘스타와 팬 사이의 친밀성’이라는 판타지를 능숙하게 생산·관리하지 못한 소속사에 근조화환을 보내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응원봉소녀들은 언제든 거두어들일 준비가 된 사랑을 대상에게 맹목적으로 쏟아부으면서 “길티 플레저”를 느낀다.⁶⁾

이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2020년대를 전후로 동시대 한국 문학장이 ‘덕질하는 마음’에 유독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pop 산업이 몸집을 키워가던 시점 각종 문예지들은 ‘덕질’을 테마로한 특집 기사를 내놓았다.⁷⁾ 무엇보다 한국 문학장에서 팬 담론의 활성화를 촉발한 계기는 2015년부터 두드러진 ‘퀴어페미니즘 담론의 재부상’이다. 퀴어페미니즘의 정치적·문화적 기획하에 문학을 포함한 각종 대중서사의 이성애 규범은 비판적 재독을 요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때 비규범적 사랑의 한 형식인 ‘덕질’이 사랑의 범주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우리의 소설 『라스트 러브』(2019)다.⁸⁾ 한 장이

4) 페미니즘 문화이론은 온라인 공간을 여성운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위치시키고, 여성 수용자들의 행위 자성을 규명하는 데 유력한 자원이 됐다. ‘영페미’와 ‘넷페미’ 세대의 단절과 연속에 대한 논의로는 권김현영·손희정·박은하·이민경, 『대한민국 네티페미史: 우리에게도 빛과 그늘의 역사가 있다』, 나무연필, 2017 참조. ‘강남역 이후’ 세대의 페미니즘 대중화 양상에 주목한 논의로는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나무연필, 2017 참조.

5) 아이돌 팬덤 양식과 페미니즘 운동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사례로서 『퀴어돌로지』(연혜원 기획, 2021)와 『페미돌로지』(류진희·백문임·허윤 기획, 2022)는 특히 주목된다. 전자가 생물학적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팬덤문화를 퀴어링(queering)함으로써 아이돌 팬들의 놀이문화에 내재하는 전복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빠순이’로 폄하되었던 여성수용자의 사회정치적 역능은 물론 자본과 덕질의 착종과 모순을 문제 삼는다.

6) 안희제, 『망설이는 사랑: 케이팝 아이돌 논란과 매혹의 공론장』, 오월의봄, 2023, 243쪽. 안희제에 따르면 “길티 플레저”를 통해 구현되는 덕질은 “자기 안의 모순을 끌어안지 않는 한 더는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동시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순을 끝내 끌어안을 이유 또한 없다는 사실을 통해 사랑과 모순의 순환을 깨닫는 과정이자, 그 모순을 붙들고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많은 협상들의 연속”이다.

7) 민음사의 격월간 문학잡지 『릿터』 11호(2018. 4-5)는 ‘K-POP 라이프’를 테마로 하여 ‘나의 아이돌’ 수기 공모전을 주최했고, 『언유주얼』 6호(2020. 1) 역시 덕질을 주제로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글들을 게재했다. 『자음과모음』 52호(2022. 3)도 ‘FAN’ 특집호로 이루어졌는데, 영화 <성덕>(2021)의 감독 오세연이 게스트 에디터를 맡았다.

8) 조우리, 『라스트 러브』, 창비, 2019.

끝날 때마다 걸 그룹 ‘제로캐럿’의 팬 ‘팬시캐럿’이 쓴 팬픽이 덧붙는 특이한 구성을 띠는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여성 팬의 마음을 사랑의 한 갈래로 퀴어링(Querring)했다. 계약관계에 기반한 산업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스타와 팬의 거리는 엄연하지만, 팬시캐럿이 쓰는 팬픽이 두 가상적 존재-아이돌이라는 가상과 팬픽 속의 허상-를 성공적으로 매개한다.

자본을 경유함으로써만 증명되는 사랑의 서사들도 주목된다. 권혜영은 ‘포카’ 거래와 ‘시즌 그리팅’ 달력, ‘생일카페’ 등 온갖 소비로 이루어진 덕질 문화(「여분의 해마」, 「사랑 파먹기」)의 면면을 리얼하게 묘사했고,⁹⁾ 이유리(「둥둥」) 역시 ‘덕통사고’를 당해 차도 집도 팔고 마침내는 죽음까지 맞게 된 ‘웬걸’을 비극을 다뤘다.¹⁰⁾ 여기서 자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랑 위에서 ‘입덕’과 ‘탈덕’ 사이를 부단히 횡단하는 ‘웬걸’의 슬픈 초상이 드러난다. 김기태 (「세상 모든 바다」)¹¹⁾, 김경욱(「너는 별을 보자며」)¹²⁾ 역시 팬을 소재로 한 글을 내놓았다. 다만 김기태의 「세상 모든 바다」(발표년도)¹³⁾에서 팬의 정치성은 K-pop의 초국적 자본과 세계질서 아래 좌절되고, 김경욱의 「너는 별을 보자며」(발표년도)¹⁴⁾는 덕질에 빠진 아내를 향한 관찰자적 시선에 머물기에 ‘아이돌과 팬 사이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주변화된다.

이렇듯 일련의 한국소설이 팬덤 공동체 내부의 문화, 자본을 매개로 한 친밀성, 덕질하는 마음과 퀴어한 욕망까지를 재현해 내는 가운데 응원봉 소녀를 향한 상찬들에서 망각된 사랑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소설군 모두를 ‘응원봉 소녀 서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일부 소설들에는 팬심을 서술자의 내면으로 회수하거나, 이타심과 같은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덕질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어떤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는 것 같다. 덕질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골몰한 나머지 ‘내 안의 타자’를 향하는 자기폐쇄적 욕망으로 전환될 때, ‘최애’를 위해 광장으로 나서는 응원봉 소녀는 영영 출현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최애’와 ‘나’ 사이의 관계 맺기 과정을 소거한 채 쓰이는 덕질하는 마음은 언제나 반쪽짜리에 그친다. 역으로 팬과 아이돌 사이의 관계가 K-pop 산업과 자본을 과하게 의식하여 쓰일 때도 문제는 남는다. 김기태의 소설이 말해주듯이, 외부 없는 자본의 포식 속에서 응원봉 소녀의 정치사회적 역량이 축소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크리미널 러브’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간 여자들’ 사이: 이희주를 경유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이희주는 무척 흥미로운 작가다. 이희주는 아이돌 팬의 문화와 심리를 리얼하게 묘사한 『환상통』(2016)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성소년』(2021), 『크리미널 러브』(2025) 등 아이돌 팬의 사랑과 자기모순, 자본과 계급의 문제를 첨예하게 다룬 작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또한 이희주는 12.3 계엄 국면에서 퇴진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한 작가 중 한 명이다. 관련하여 작가는 지난봄 계간지 『문학동네』에서 발표한 에세이를 통해 광장에서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모든 사태를 지나오며 내가 겪은 시민 되기-살-죽음도 불사할 순결한 사랑-빠순이
되기의 연결을 설명할 말은 아직이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찢어져 있**

9) 권혜영, 『사랑 파먹기』, 민음사, 2023

10) 이유리, 『브로콜리 편지』, 문학과 지성사, 2021

11)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12) 김경욱, 「너는 별을 보자며」,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5』, 북다, 2025

13) 김기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문학동네, 2024.

14) 김경욱, 「너는 별을 보자며」, 『2025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북다, 2025.

있고, 지금도 찢겨 있고, 이젠 그런 나를 꿰매고 싶다. 어떤 사랑엔 삶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느끼하고 공감 가지 않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삶을 구원한다고, 더 낮게 한다고 믿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다. 내가 골방에서 행하던 사랑을 어떻게 광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내 사랑의 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며 겪는 모순을 토로할 때 ‘그게 뭔데 씹덕아’ 같은 반응을 듣는 대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청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나’의 지독히 사적인 사랑을 위해 연대할 수 있을까? (강조는 인용자)¹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짧지 않은 골물 끝에도 이희주는 ‘시민-되기’와 ‘빠순이-되기’가 어떻게 한 줄에 꿰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찢어진 나를 꿰매고 싶다”고 선언한다. 물론 그를 찢어놓은 것은 ‘골방’(덕질)과 ‘광장’(정치)의 이분법이다. 공과 사, 취향과 대의, 정치 주체와 소비 주체를 엄격하게 구분 지어온 사회문화적 공기가 응원봉 소녀들의 자기검열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희주는 근작 「사랑, 하고 있습니까」(2025)에 2024년 대통령 퇴진시위 현장을 직접적으로 등장시켰다.¹⁶⁾ 다시 한번 소설의 초점화자로 등장하는 ‘우미’는 집회현장에서 응원봉을 든 여자들을 취재하라는 선배의 말에 광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응원봉을 들고 있는 그 “누구도 똑바로 볼 수 없”(377)다고 느낀다. 넷상에서 선정적인 팬픽을 썼다는 것이 공론화되어 덕질도 회사도 그만두게 된 친구 ‘영하’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빠순이-되기’와 ‘시민-되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골물하던 이희주가 신중하게 내어놓은 대답처럼 보인다. 어떤 응원봉 소녀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무결하지도 않다. 그리고 광장에는 섹슈얼리티.계급.에이징의 문제를 둘러싸고 반목하거나 대립해 온 이들이 이제까지의 갈등을 모르는 체하며 짐짓 깨끗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한다. 그 때문에 이희주의 소설을 읽으면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응원봉 소녀를 향한 찬사에는 이 여성들의 위험한 욕망과 내부의 위계가 비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5. 결론

이 글은 ‘응원봉 부대’, 즉 광장정치에 참여하는 ‘올바른 정치적 주체’로서 아이돌 팬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왜 항상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는지를 해명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쓰였다. 특히 자본에 포박되어 있고, 자기모순적 존재인 응원봉 소녀가 실천하는 ‘사랑’의 다기한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응원봉 소녀 가운데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이들 역시 존재할 것이다. 응원봉 부대는 (쓰리디 덕질을 하는) ‘훤걸’과 (투디 덕질을 하는) ‘덕후’로만 환원될 수 없다. 광장에는 “자신은 팬 정체성이 강하지 않”으며 “응원봉을 들고 나가는 것이 트렌드가 아니었다면 맨몸으로 나갔을 것”이라 말하는 여성 참여자 또한 존재했다. 또한, 응원봉이 그 자체로 자유.민주.진보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응원봉의 빛은 우연하고, 비결정적인, 복수의 계기로 인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응원봉 소녀’라는 기표는 같은 모양과 구조가 무한히 크기를 키워나가는 프렉탈의 형상이 아니라 각각 면적과 크기를 달리하는 면들로 이루어진 다면체의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15) 이희주, 「12월 3일 이후 풍풍쟁이 겪은 이상한 사건의 전말」, 『문학동네』 122호, 2025.03, 80

16) 이희주,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크리미널 러브』, 문학동네, 2025, 339~379쪽.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